
2021년 제5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12. 24. ~ 12. 3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2. 24.	시청률	0.023

【총 평】

‘화산마을 전통 메주 띄우는 날 - 경북 군위’편은 전통 방법으로 메주를 쑨는 부부를 통해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전통 메주를 쑨는 수작업 과정의 정성과 시간이 가마솥과 함께 고스란히 그려졌고, 메주 쑨는 정성에 나무를 패고 불을 지피는 과정과 불도 사람이 옆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잘 담아내었다.

부모님을 돕는 아들 내외의 모습과 주인공 부부의 모습을 통해 프로그램이 전하고자 하는 휴먼의 가치가 느껴졌다. 멀리 다른 지방에서 좋은 메주를 구입하러 온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통 메주가 홍보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했다.

【구성 및 내용】

‘화산마을 전통 메주 띄우는 날 - 경북 군위’편에서는 4대 째 이어지고 있는 전통 메주를 쑨는 방법과 과정이 가감 없이 잘 전달되었다. 주인공 부부는 도시에서 대형 학원을 운영하다가 귀농한 지 20년이 넘었다. 시할머니로부터 전수 받은 메주 레시피를 시어머니를 통해 전수 받아 예전 방식대로 메주를 띄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부는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메주를 빚는다. 메주콩은 새벽 3시부터 삶기 시작하면 12시 정도에 준비가 된다. 삶은 콩을 너무 곱게 갈면 장을 담글 때 간장이 탁해져 콩알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갈아 예쁘게 메주를 만든다. 처음 귀농 당시 하나뿐인 아궁이에 하루 종일 불을 때 콩을 삶아서 메주를 빚었던 부부는 그 사이 아궁이의 개수를 일곱 개로 늘릴 정도로 메주 맛을 인정받고 있다.

귀농 초보시절에 아궁이 하나로 시작했던 메주 만들기가 세월이 10여년 흐른 이제는 소기업체가 된 듯하다. 메주 만들기는 매년 11월 말이면 시작한다. 남편은 아궁이를 땀 장작부터 준비하고, 1년 전부터 말려서 준비한 사과나무 가지를 좋은 불쏘시개로 쓴다. 아내는 콩을 삶는데 끓어 넘치는 물에 된장을 약간 풀어 넣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고 그 지혜 또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님을 느끼게 해주었다. 메주 쑨기를 도와주고 그 전통 방법을 전수하겠다는 아들 내외,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신들이 터득한 메주의 비법을 며느리에게 전수 중인 부부는 맛있는 장맛이 비결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 삶의 철학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메주 각시 벗집을 매주는 과정에서 사람이든 무엇이든 부드러워야 좋다는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전달해주었다. 부부는 메주를 만드는 비법과 철학을 쌓아가며 인생이란 배움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메주도 꼭 어린아이 같아요. 정성 없이 관심만 두고 조금만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 하다가 와보면 엉뚱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뒤편만 해요.”라는 부부의 말에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띄우는 과정까지 모두 아이를 돌보듯 정성을 다 하는 부부의 모습에서 삶의 철학이 느껴졌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12. 24.	시청률	0.006

【총 평】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편에서는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필요성과 내년 변동률 전망을 살펴보고 조세 상향 우려에 대해 실수요자 부담완화 방안을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표준지, 실거래가 등의 개념과 책정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알뜰신잡은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법’을 소개했다. 빙판길 교통사고 급증시기는 기온이 떨어지는 12월, 1월이며, 차량관리를 위해 배터리, 타이어, 등화장치, 제동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구성 및 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폭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매매가격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한풀 꺾였다”,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을 계속 높여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영향을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소개한 구성이 돋보였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우선 가격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추세를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지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의 일부 주요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에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2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서도 오른다.

공시가격 산정 시에는 지난 해 실거래가격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보다 30% 정도 낮게 책정한다. 이에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큼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제가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다. 이를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한다. 실제 표준지 현실화율의 경우 2022년은 71.4% 수준으로 2021년 68.4%로 보다 높다. 이는 공시가격 정정 가치의 반영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도 따라서 는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내년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2. 24.	시청률	0.018

【총 평】

‘스우파가 달군 댄스열풍’에서는 스트리트 댄스가 대중문화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으며 브레이킹 댄스가 2024년 파리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음을 소개해 주목도를 높였다. ‘반려식물 ‘치료’해드려요’는 집에서 잘못 관리해 병이 든 식물을 집 근처의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유익한 정보를 전했다. 이 밖에도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은 독일 비스바덴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 풍경을 소개했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돕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 ‘목공예 체험 좋아요’에서는 목공예 전시와 체험공간이 마련된 경기도 이천시의 목재 문화 체험장을 소개하고, ‘전기장판 화재주의’는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렸다.

【구성 및 내용】

■ ‘스우파’가 달군 댄스열풍

스우파(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열풍으로 실용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 실용댄스 중에서도 브레이킹 댄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많은 젊은 이들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K-댄스는 또 하나의 한류로 주목받고 있다.

■ 반려식물 ‘치료’해 드려요

대구시 한국화원협회에서는 동네 꽃집 20곳을 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식물 치료에 편리를 주고 있다. 치료뿐만 아니라 장소와 목적에 맞는 식물을 추천해준다. 또 반려식물을 관리하는 법을 교육하고, 찾아가는 화초 돌봄 서비스, 도시농업학교를 소개했다.

■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

독일 비스바덴에서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마켓이 2년 만에 열렸다.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엔 방역에 관한 안내 방송이 나오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마켓을 찾아와 구경도 하고, 음식을 사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전했다.

■ ‘목공예’ 체험 좋아요

경기도 이천시의 목재 문화 체험장을 소개했다. 나무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직접 목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실에서는 갖가지 나무 표본을 만져보고 그 특성과 질감을 느껴볼 수 있다. 또 아이들이 부모님과 나무 퍼즐 게임 등 체험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냈다.

■ ‘전기장판’ 화재 주의

겨울철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했다. 장시간 접힌 상태로 사용하면 전선이 손상되어 불이 나기 쉬우며, 라텍스 소재 침구는 열을 흡수하므로 그 위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안전 인증을 받은 KC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2. 25.	시청률	0.209

【총 평】

‘시골에서 꼭 농사만 지어야 하나요?’편에서는 도시에서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40대 부부가 경북 상주로 귀촌하여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찾은 이야기를 담아냈다. 아내는 디자이너 경력을 살려 추억의 의상실을, 남편은 취미를 살려 빈티지 선물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좋아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 행복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부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누리며 행복한 기억을 만들고, 체계적이지 않아도 실타래 같이 꼬여있을 때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는 여운을 남겼다. 자연 속에서 자녀 교육, 여유롭고 화목한 가정, 취미 생활 등 귀촌의 이점을 보여주어 시청자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다양한 귀촌 방식을 전했다.

【구성 및 내용】

서울에서 섬유회사를 운영하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경북 상주로 귀촌을 단행한 귀촌 3년 차 부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상주 시내에 위치한 작은 개인 의상실은 아내의 작업실이자 가게다. 결혼 전 디자이너로 일했던 주인공은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엄마로 살다가 상주로 귀촌 후 자신이 원하던 일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내의 의상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는 남편의 가게가 있다. 빈티지 의류나 용품, 실내 장식용품, 선물용품들을 취급하고 지역 작가들과 협업하여 위탁판매 등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 했던 일에 비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수입이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주인공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한때 폐교 위기에 처해있던 농촌 학교였지만 지금은 부모들이 오히려 찾아오는 학교로 변모했고 현재는 미래학교로 지정되었다. 학교에는 토끼부터 거북이 등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 밖에도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운다. 부부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시험과 경쟁이 없는 놀이 위주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모든 걸 찾아 하게 하는 학교의 교육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 부부는 귀촌 후 주말과 휴일은 늘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다. 경운기를 타고 함께 장작을 구하러 가고, 향아리 화덕에 삼겹살을 걸어 놓고 고기가 익는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팽이치기를 하기도 한다. 3대가 저녁을 함께 먹고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상주에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화가, 작가로 활동하다 귀촌한 사람들이 모여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부부는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주기도 한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 카드를 쓰고, 트리를 장식하고 딸의 피리 연주를 들으며 즐거운 저녁을 보내는 모습 등을 보여주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2. 26.	시청률	0.005

【총 평】

‘친북’은 지난 김정일 사망 10주기 추모 대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급격히 변화된 모습이 포착되면서 올 한 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대역설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급격한 외모 변화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면서 시사와 재미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살렸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격히 노화된 모습을 중심으로 건강 이상설, 대역설,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해석과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집중시키며 몰입감을 높였다.

‘이슈 텔링’에서는 2년 만에 다시 열린 DMZ 평화의 길 재개방 소식과 의미를 살펴보며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끌었다. 금기의 땅 DMZ 여행을 가능하게 만든 정부와 각 부처의 노력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면서 소구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친북’에서는 인터넷 정치인 검색 순위로 김정일 위원장을 자연스럽게 등장시켜 그의 행보와 다양한 이슈를 전달하여 주목도를 높였다. 김정일 사망 10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살이 급격히 빠지면서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다. 작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요행사에 불참하면서 건강이상설이 돌았고 심지어 사망설까지 나왔다. 특히 급격히 노화된 모습에는 국가운영실패에 대한 반성과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일수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결속력을 높이는 선전효과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건강이상설이 맞지 않을까하는 수용자의 호기심과 추측을 다양하게 자극시키며 몰입도를 높였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프린팅된 티셔츠가 등장했고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모란봉 악단이 메탈음악을 연주하거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등의 파격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야간 열병식을 실시하기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선전하려는 것은 강한 나라 이미지 구축, 애민정신과 헌신 개념을 합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슈 텔링’에서는 비무장지대 DMZ의 테마관광을 소개했다. DMZ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정부 각부처의 오랜 노력과 협업 끝에 관광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광코스는 10개 접경지자체에서 11개 테마코스를 정해서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했다. 추천코스는 ‘파주 평화의 길’, ‘양구 평화의 길’이 있는데, 양구 평화의 길은 금강산 가는 길이 코스에 포함되어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길이다. 파주 평화의 길은 서부 전선에서 철거된 6개의 지피 중 유일하게 개방된 특별한 장소이며 파주는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교류를 위한 중요한 길목임을 강조하면서 주목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12. 26.	시청률	0.051

【총 평】

‘10대 크리에이터’, ‘요즘 중학생의 사생활’편에서는 통제가 어렵다는 중학생의 너튜브 성공기, 그들만의 세계, 가치관, 인생관을 들여보고 노년세대와의 세대차이를 좁혀보는 시도의 기획이 유의미했다. 학생 세대의 놀이 문화, 대화 방법, 비대면 수업 에피소드 등 사생활을 거침없이 들여본 구성이 학부모를 포함한 어른세대의 흡인력을 높였다.

‘10대 크리에이터’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 활동 동기와 향후 꿈 등을 소개했고 ‘요즘 중학생의 사생활’에서는 학생의 용돈, 코로나19 전후의 친구들과의 놀이, 친구들과의 소통, 학교에서의 비대면 수업, 학원 등에 대해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10대 크리에이터’ 편에서는 요즘 많은 10대들이 희망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에 대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인공은 10대 크리에이터로 초반에는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많이 올려 현재는 10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게임을 좋아하다보니 어느새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 이후 영상 촬영, 편집 기술을 배우고 7년째 활동하고 있다. 주인공은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일반 대중매체에서 볼 수 없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했다. 초등학생 때 아빠와 함께 장난감 리뷰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100만 너튜버가 된 현재까지 영상을 꾸준히 올려 대학 등록금을 이미 확보해놓았다고 이야기해 주목도를 높였다.

‘요즘 중학생의 사생활’ 편에서는 주인공은 일주일 용돈이 1만원인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현재는 부족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에는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요즘에는 편의점에 많이 간다고 말했다.

끈대할매의 학생 시절에는 편의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양푼 냄비에 우동을 먹곤 했다고 이야기해 세대 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또 요즘 10대들의 흥미와 또래 친구들의 소통 방식에 대해 끈대할매는 처음 듣는 단어가 많고, 주인공도 ‘수·우·미·양·가’라는 옛날 성적 평가용어를 듣고 생소해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더했다. 요즘 아이들은 SNS를 활용한 메시지를 주로 활용하고 공적인 대화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전화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일종의 전화 공포증이 있다고 이야기한 점도 흥미로웠다. 주인공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자주 이뤄지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도는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인공은 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할 정도의 성실한 학교생활을 병행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진학을 희망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 너튜브를 시작하면서 매일 영상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자 노력해왔고, 많은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영상을 통해 얻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점이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12. 26.	시청률	0.063

【총 평】

‘한국판 뉴딜의 미래 전망’ 편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의 배경과 의미, 성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분석했다.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을 살피고 투자규모,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내용과 성과를 소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사업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단순한 축약 설명이 아니라 적절한 비판을 통해 더욱 입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한국판 뉴딜의 미래 전망’이라는 부제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판 뉴딜의 배경,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 한국판 뉴딜 2년의 성과,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의 핵심사업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뉴딜정책을 참고하여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그린, 휴먼뉴딜을 통해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처음 발표 시에는 19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연 단위로는 40조 원 수준으로 이는 국방예산이 연 50조 원 수준임을 고려 시 상당한 투자규모였다. 전문가는 뉴딜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플랫폼으로서 판이 잘 짜여 있어야 하고, 오히려 단단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차기 정부는 물론 지속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과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판 뉴딜 성과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없다보니 국민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일자리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따라 없어지게 되는 일자리에 대한 안전망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를 통해 2050년까지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산업으로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막대한 부가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기업 10곳 중 7곳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부가가치 시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빅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의 융·복합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린 뉴딜의 핵심 산업인 저탄소, 친환경 기술력 자체는 글로벌 경쟁력 속 우위에 있으며 현재 2050년까지 석탄발전에 대한 단계적 감축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었다. 정부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이룩하기 위한 R&D 기술 개발은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12. 26.	시청률	0.026

【총 평】

‘탄소 중립 선언 1년, 일상생활 속으로’편에서는 탄소 중립 실행 과제를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하고 수행하는 의미와 실효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였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국가 목표로 삼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개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페트병 라벨 제거 후 분리 배출하기,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기, 배달 음식에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소개했다. 또 개인의 작은 실천 노력과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하는 아파트 우수 사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개인과 구성원 기업 간 변화의 노력 현장을 살펴보았다.

【구성 및 내용】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10일 ‘탄소중립선언’을 통해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29일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 타워가 출범하였고, 2021년 5월 30일~31일에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2021년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12월 7일에는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추구하자는 차원에서 2024년부터 초중고 전 교과에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실시되었던 1년 동안 우리의 일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화분의 식물에 주고,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배출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살 때에는 텀블러를 사용하며,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꾸는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졌고, 주차비 등 환경보호 차원의 지원도 있다. 또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환경운동 중 하나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택해서 주문하면 용기를 회수해 가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앞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에서는 음식배달 포장 시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높은 제조업이 GDP에서 굉장히 높으며 산업 부문에서 전환이 필수적인데, 이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가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계도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 모두를 포용해 함께 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위기에 대비하는 전직에 대한 재교육, 재훈련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다양한 모든 면을 포함해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이다. 탄소중립 선언 후 지난 1년은 제도적, 현실적 변화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2050년까지는 현실적인 변화와 행동이 절실함을 일깨웠다.